

남자 대학생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기아차'

여자는 대한항공 꿈아 잠코리아 2211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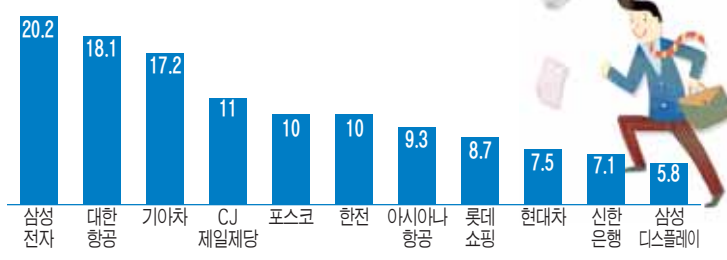
기아자동차가 국내 남자 대학생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했다. '기업 대표의 대외적 이미지'가 좋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여자 대학생은 대한항공을 선호 1위 기업으로 꼽았다.

취업포털 잠코리아가 12일 내놓은 '100대 기업 고용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2211명(남자 1040명·여자 1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28%, 여학생의 23.3%가 각각 기아자동차와 대한항공을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택했다.

기아자동차를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한 남학생의 43.4%는 '기업 대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가장 우선적인 이유로 답했다. 다음으로 '연봉수준'(41.4%)과 '기업문화'(23.0%)를 꼽았다. 여학생의 54%는 대한항공의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을 우선 순위로 답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20.2%의 지지를 받아 지난 2004년부터 10년째 내리 1위 자리에 올랐다. 이어 대한항공(18.1%), 기아자동차(17.2%), CJ제일제당(11.0%), 포스코(10.0%), 한국전

■ 대학생 입사하고 싶은 기업 (단위:%)



력공사(10.0%), 아시아나항공(9.3%), 롯데쇼핑(8.7%), 현대자동차(7.5%), 신한은행(7.1%), 삼성디스플레이(5.8%) 순으로 상위 10위를 형성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14위였으나 올해 3위로 크게 뛰어올라 선호

도가 급상승했으며 이공계열 대학생 선호도에서도 삼성전자(20.9%)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각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로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24.7%), '회사의 비전

및 성장가능성이 커 보여서'(20.4%), '기업이미지와 기업문화가 좋아 보여서'(17.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잠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시대마다 주목하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목받는 기업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라면 지금 당장 각광받는 산업보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해당 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기업 채용시 스펙보다 열정·끈기 중시"

전경련 조사

주요 대기업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영어점수, 학점 등 일반적인 '스펙'보다는 회사 관련 자격증과 도전정신, 열정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6~7월 180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졸 신규 채용과 스펙 연관성 조사'를 벌인 결과 67.8%의 기업이 영어점수 스펙을 채용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변별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도전정신·열정'이 46.1%로 가장 많았고 '끈기·성실성'(38.4%), '창의력'(2.2%), '다양한 스펙'(1.1%) 순이었다.

이들 대기업은 토익(TOEIC) 등 영

어점수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정 점수만 넘기면 차이가 없다'거나 '채용에 결정적 요소 아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9.5%, 2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경련의 지난 5월초 대졸 취업준비자 8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7.5%(795명)의 응답자가 '스펙이 취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것과는 전혀 다른 판이다.

당시 조사에서 예비 취업생들은 준비하는 취업 스펙(중복응답)으로 '토익 등 영어 점수'(69.2%), '각종 자격증'(64.5%), '학점관리'(57.8%), '인턴활동'(24.9%) 등을 들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평균 토의 점수는 990점 만점에 686.3점으로 지난 5월 조사에서 취업 준비자들이 응답한 평균 목표점수 786.2점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 4대중 1대 현대·기아차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이 지난달 이스라엘 시장에서 전체 자동차판매 1위에 올랐다. 또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4대 중 1대는 현대·기아차일 정도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업계 및 이스라엘자동차수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이스라엘에서 '피칸토'라는 명칭으로 출시된 기아차 모닝은 지난달 현지 시장에서 1213대가 판매돼 포드 포커스(1138대)를 누르고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했다. 이스라엘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집계된 이래 경차가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닝은 지난해 5529대가 판매돼 스텝키 알토, 현대차 i10 등 경쟁 모델을 제치고 경차 부문 최다 판매차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모닝의 인기에 힘입어 올 7월까지 기아차의 이스라엘 누적 판매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어난 1만2749대로 판매량 기준 순위가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판매 1위는 7월까지 모두 2만2898대를 판매한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2011년 이스라엘 수입차 시장에서 15년간 부동의 1위였던 마스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줄곧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 점유율 26.3%를 기록, 판매되는 자동차 4대 중 1대가 현대·기아차일 정도로 이스라엘 현지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말복 '삼계탕 톨렛이벤트'

12일 말복을 맞아 광주시 동구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정문에서 '삼계탕 톨렛이벤트'가 열렸다. 한 고객이 경품을 타기 위해 화살을 던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경제활동인구 고령화 갈수록 심각

50세이상 비중 35.6% 사상 최대... 10년새 12%p 상승

경제활동인구 고령화가 심해져 50세 이상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새 이 수치는 12%포인트나 상승했다. 소위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포진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장·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준다.

1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수치는 2010년 3월 30.5%로 3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 작년 12월 33.6%였고 올해 들어 더욱 높아졌다.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도 올해 6월 13.6%로 사상 최고였다.

이 수치는 10년 전인 2003년 6월 9.8%에 그쳤다. 장년이 지난 연령인 60세 이상이던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인구 비중이 10년 새 3.8%포인트 커진 것이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2천억 투자

한화케미칼이 12일 2047억원을 투자해 여수공장을 증설한다고 공시했다. 투자액은 한화케미칼 자기자본의 4.48%에 해당한다. 증설 생산규모는 연간 염소 12만, 가성소다 13만, EDC(에틸렌 디클로라이드) 20만이며 상업생산은 2015년 6월에 시작한다.

한화케미칼 측은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와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케미칼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2조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중에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세청, 11월부터 금융거래정보 활용 탈세 적발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세자나 체납자 적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 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국세청은 FIU 정보를 조세·관계 범죄 조사와 세무 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세·관계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조세 및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탈세 혐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탈세정보분석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탈세혐의 당사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당사자 통보를 미룰 수도 있도록 했다.

기존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사의 의심거래보고 의무 기준도 폐지해 의심 사례는 무조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신송금 의무보고 기준액을 100만원 초과로 설정해 소액으로 인한 뒤 전신 송금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연합뉴스



우수 공선출하회 시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12일 '2013년도 상반기 우수 공선출하회(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회) 시상식'을 갖고 담양 무정농협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 장성 백양농협 새송이버섯공선출하회, 진도 선진농협 대파공선출하회 등 3개 조직을 선정, 시상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12일 '2013년도 상반기 우수 공선출하회(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회) 시상식'을 갖고 담양 무정농협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 장성 백양농협 새송이버섯공선출하회, 진도 선진농협 대파공선출하회 등 3개 조직을 선정, 시상했다.

연합뉴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 28석, 16석 룸반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도(100석)	취화(90석)	미취화(68석)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ungol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돔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돔 육식: 토종 참돔 / 참돔 찜 / 참돔 삼계탕

한방 육식: 한방 백숙 / 한방 찜동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돔 (9부, 식사술포함) 40,000원

춘달백숙 38,000원

욱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062)515-5757(욱칠욱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부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